

45

귀하게 쓰임 받은 사무엘

삼상 3, 12장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 186장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1. 사무엘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압니다.
2.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압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로 하나도 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삼상 3:19~20)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삼상 12:23)



말씀을 이해하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레위인과 심지어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였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여호와의 섬기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사무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셨으며,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부름을 받아 노년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But in a great house there are not only vessels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clay, some for honor and some for dishonor. Therefore if anyone cleanse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 vessel for honor, sanctified and useful for the Master, prepared for every good work. (2 Ti 2:20~21)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귀히 쓰는 그릇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각각 어떤 모습을 가리키나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비교해서 적어 봅시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훤니와 비느하스)	

2 사무엘의 기도생활을 정리해 보고 나의 기도생활을 반성해 봅시다(삼상 12:23).

3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쓰임받은 이유	
쓰임받은 일	

4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삼상 3:19

의

삼상 3:20

화

삼상 12:23

↑

시 119:5

↓

시 119:30

↓

엡 2:10

↓

딤후 2:14



온전한 헌신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금을 담은 그릇은 우리의 주머니 모양과는 달리 조금 작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숫대야처럼 생긴 것이어서 헌금을 넣으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헌금 그릇이 쪽 돌아가면서 헌금을 담던 도중 한 소년 앞에 이르자 이 소년이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것이냐?”며 소년을 꾸짖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대신 하나님께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소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직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그리스어와 의학,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의 인정을 받아 1840년 12월 아프리카로 출발합니다. 13주간 항해를 하는 동안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를 공부하였고, 이듬 해 3월부터 아프리카 내륙 탐험과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더위와 영양부족, 질병과 열악한 환경, 사자와의 싸움, 아프리카 부족들의 공격 등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천의 마을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현재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치탐보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프리카 하인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의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그의 심장과 내장을 제거하여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시신은 9개월의 힘든 여정을 거쳐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장례는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어요~



보험이나 연금은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비추어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4)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일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다릅니다. 장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후 12:14)

국민연금, 노후연금, 보험 등을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설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아무 일을 못 한다면 이는 합당치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드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물론 믿음대로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꼭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늙어서 많이 타려고 지금 무리하는 것은 합당치 않지만 자기 할 수 있는 만큼해서 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이나 연금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생활에 무리가 된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축의 경우도, 자기 행복만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기는 대로 쓴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들도 더 나은 장래를 위함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